

극단새벽 **역사추적극**

폭침!! 우끼시마호는 부산항으로 못간다!

이 작품을 일본 국민들의 양심앞에 내 놓습니다.

정신대와 우끼시마호 폭침! 전혀 다른 두개의 사건
두개의 사건이 갖는 공통성, 역사! 결국 한일간의 문제
배봉기 할머니, 정신대 피해자로 극심한 자폐증에 시달렸다.



92.11.5(목) - 15(일)

4시30분, 7시30분 (월요일은 쉬)

작·연출 이성민

▶ 이 작품은 우끼시마호 사건관련 생존자 및 유가족모임. 정신대 대책위에서 후원합니다.

극 단 새벽

역사 추적극

폭침 !! 우끼시마호는 부산항으로 못간다 !



• 작/연출 : 이 성 민

• 후원 :  KBS 부산방송본부

 釜山日報







